

3

봉사, 네가 날 사랑한다면

벧전 4:7~11, 요 21:15~17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84장 (우리가 걷는 이 길)



1.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압니다.
2.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음을 알고 행합니다.



만물의 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할지니 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
 접하기를 원망 없이하고 각각 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같이 서로 하라 (벧전 4:7~10)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If anyone speaks, let him speak as the oracles of God. If anyone ministers, let him do it as with the ability which God supplies,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long the glory and the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1 P 4:11)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2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요구될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교회에서 봉사가 왜 필요한지 적어 봅시다(엡 4:12, 딤후 3:17).

② 교회에서 봉사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롬 12:11, 벘전 4:10, 눅 16:1~10).

②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봅시다.

④ 우리 분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분반에서 교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눅 16:10

화

롬 12:11

화

엡 4:12

수

딤후 3:17

목

빌 3:3

금

벤티전 3:13

토

벤티전 4:10



사랑으로 하는 봉사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막이 오르는 날이 되었을 때, 그날따라 오르간에 펌프질할 사람이 그만 병이 생겨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연주회는 시작해야 하고, 펌프질할 사람은 없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런 보잘 것 없고 천한 일을 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곡가는 “나는 음악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는 그 어떤 일에도 그것이 보잘 것 없다거나 하찮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동원된 역군들처럼 열심히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나셨다면 어머니인 마리아 피가 섞였을 텐데 어떻게 죄가 없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고, 또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는 하늘에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럿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만약 승천하실 때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면 누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리셨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므로 특별히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 8:46)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한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벧전 3:18)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淸算)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